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서 본 존 웨슬리의 선교신학¹⁾

최형근

(서울신학대학교, 선교신학)

한글초록

본 논문은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고찰하고 존 웨슬리의 삶과 사역과 신학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의 특징들인 선행 은총,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고 창조와 치유와 회복을 분석하고, 그 특징적 요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선교적 함의들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선교개념을 이해하는 최상의 방법은 선교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교의 의미는 하나님의 신적 행위가 그의 백성을 불러 언약관계를 맺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이다. 아버지에 의해 보냄 받은 예수는 교회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어 세상으로 파송한다. 존 웨슬리에게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슬로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보냄 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1) 본 논문은 2013년 5월 31일 서울신학대학교 웨슬리 회심기념강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 했음.

규정한다. 웨슬리는 구원이 영원한 생명의 출발을 함축하는 선행은총에 의해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구원의 과정은 칭의(의롭게 하시고 회심케 하시는 은총)와 성화로 진행된다.

이 과정들은 구원의 통전적 차원을 가리킨다. 첫째, 비록 선행은총 그 자체가 구원하는 은혜는 아닐지라도, 선행은총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앞서 가신다는 것이다. 둘째, 웨슬리 신학에서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른다는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성숙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웨슬리에게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이해된다. 존 웨슬리의 삶과 사역은 그의 설교와 행위의 통합 가운데 나타난다. 셋째, 구속신학과 창조신학의 통합으로서 존 웨슬리의 신학의 선교학적 함의들은 치유적 모델로서 개인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 모두를 강조한다. 이것은 창조와 구속에 대한 이원론적 이해를 극복하게 하며,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통전적 차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웨슬리 신학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인간의 삶의 차원에서 치유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숙고하도록 만든다. 이것은 치유로서 구원이며, 치유란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치유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만들 수 있다.

I. 들어가는 글

존 웨슬리의 삶과 사역에 나타나는 그의 선교적 특성이나 관점들은 오늘날 교회의 선교에 중요한 함의들을 제공해 준다. 웨슬리 신학은

철학적이거나 숙고적인 신학이 아니라 목회와 선교현장에 나온 선교신학이라고 볼 수 있다. 존 웨슬리를 현대 선교학적 관점에서 조명해, 그의 사상 가운데 선교와 연관된 주제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웨슬리의 사상에 대한 접근은 연역적 방법이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에서 그가 사용한 용어들과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통한 귀납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설교와 저술들 가운데서 발전된 웨슬리 신학은 본질적으로 선교신학이며,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는 것은 웨슬리의 사상에 대한 오해를 낳게 된다. 비록 존 웨슬리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요 20:21-22)를 이해했으며, 매우 심오한 방식으로 제자 삼는 선교(마 28:18-20)를 이해했다.

전통적으로 교회 중심의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르시고 보내시는 본성과 행위로서의 선교(mission)에 근거해 있기보다, 주로 교회의 선교사역(missions) 중심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지상대위임령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래 선교는 기독교론에 근거해 있다. 하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없는 기독교론은 선교를 교회 중심적이며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으로 축소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오늘날 존 웨슬리의 신학적 중요성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웨슬리의 선교적 사상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그의 삶과 사역과 가르침은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해 있으며,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의 선교와 상관성을 띠고 있다. 웨슬리에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의 대행자이다. 따라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사이며, 혹은 선교적이다. 웨슬리의 선교는 성경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대행자라는 인식에 근거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소고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고찰하고 존 웨슬리의 삶과

사역과 신학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의 특징들인 선행 은총,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고 창조의 치유와 회복을 분석하고, 그 특징적 요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선교적 함의들을 제시한다.

II. 하나님의 선교: 선교와 교회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핵심요소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은 선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보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고 불러내어 **언약**을 맺으셔서 세상 열방들 가운데 **보내시는** 신적 행위이며(출 19:46; 벰전 2:9), 아버지께 의해 보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에게 복음의 위임명령을 부여하고 성령의 능력과 함께 세상으로 보내시는 신적 행위(요 20:21-22)를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존재양식은 하나님의 선교로 인해 그 본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선교적 해석학(missional hermeneutics)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성경과 교회와 세상을 조망할 때, 하나님의 선교의 산물로서 성경이 나왔으며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Wright)는 그의 선교적 해석학에서 **선교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 **선교의 무대로서 열방**이라는 도식을 사용하여 부름 받고 보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거룩한 제사장적 삶의 모습을 묘사한다. 동일한 관점에서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 역시 그의 선교적 교회론(missional ecclesiology)에서 **복음**, **교회**, **세상**이라는 도식을 사용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의해 보냄 받은 온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열방들)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묘사한다. 크렉 반 겔더(Craig Van Gelder)는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본래적으로 선교 교회이다. 성령께서 교회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확립하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는 것처럼, 교회는 아들의 구속사역에 전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교는 교회의 기능적 접근에서 그 본질로의 전환”이라고 말한다.²⁾ 특히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요 20:20-21)는 요한의 위임령 텍스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의 근거와 “보냄 받은” 교회의 정체성을 발견한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파송되며, 그의 사역은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사역을 이행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교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고 세상으로 보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본질과 사명, 그리고 과제가 무엇인지를 규정한다. 다시 말하면, 선교신학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 죄로 만연한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경륜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열방 가운데 보내시는 이야기, 즉 거대서사(grand narrative)인 성경 이야기에 근거한다. 이것은, 선교가 하나님의 본성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본질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는 행위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교(mission)라는 개념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선교를 의미하는 “파송이나 보냄 받음”(sending, sentness)이라는 개념은 헬라이어 *pempo*와 *apostello*로 표현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시며, 성령과 함께 제자들과

2) Craig Van Gelder, *The Essence of the Church: A Community Created by the Spirit*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0), 31.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온 교회를 보내신다. 이러한 점에서, 신구약 성경은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선교로 구성된다. 그 이유는, 성경이 타락한 인간을 자신과 화해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그의 나라의 선취이고 표지와 맛보기로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교와 교회의 관계를 숙고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그 본질을 재발견하고 사역의 내용과 구조와 조직의 갱신을 이룰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는 실마리이다. 오늘날 선교와 교회의 관계를 살펴보면, 선교는 교회 사역의 일부이거나 교회성장을 위한 기능적 도구로 축소되기도 한다. 그러나 선교가 교회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주장은 선교와 교회의 분리를 초래한다.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이다. 교회의 본질과 사역과 조직/구조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나온다.

현대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은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제기했다.³⁾ 제기된 질문은, “교회의 선교란 무엇인가?”였는데, 이것이 잘못된 질문이라는 주장이 많은 선교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선교에 대한 올바른 질문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안에 제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인가?”이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선교와 교회의 통합 뿐 아니라 창조신학과 구속신학의 통합,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의 통합과 같이 성숙 이원론을 극복하는 방편인 통전적(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의

3) 하나님의 선교 개념과 그 논쟁과 발전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보쉬, 『변화하고 있는 선교』, 김병길, 장훈태 역, (서울: CLC, 2000), 576-581; 김은수,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18-142 참조.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성서 신학적 접근에 대해서는,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나님의 선교』, 정옥배, 한화룡 역, (서울: IVP, 2010);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나님 백성의 선교』, 한화룡 역, (서울: IVP, 2012) 참조.

기초를 제공한다. 또한 이 개념은 교회중심의 선교개념에 나타난 실용주의적이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과업 지향적(task-oriented) 접근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했다.

1952년 독일 빌링겐에서 열린 국제선교협의회(IMC)에서 칼 바르트의 영향을 받은 칼 하르텐슈타인(Karl Hartenstein)에 의해 하나님의 선교가 제시된 이래, 이 개념은 하나님의 파송하는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교회중심의 선교에서 삼위일체 중심의 선교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의 위치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1950년대 초 선교의 삼위일체의 토대를 주장한 레슬리 뉴비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가 선교와 교회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교회의 연합과 일치룰 이루는 핵심 요소임을 주장했다. 1960년대 들어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가 인간화와 세속화를 논의의 화두로 삼고 선교를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 즉 세상을 섬기기 위한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활동으로 보게 되었다. WCC 진영의 이 주장은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교회의 위치를 모호하게 만들었으며, 선교를 단순히 세상과 관련된 정의, 평화, 해방이라는 의제들로 축소했다. 보쉬는 이러한 교회와 세상과의 선교적 관점의 변화가 하나님-교회-세상에서 하나님-세상-교회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 변화가 교회에 대한 두 견해들 간의 지속적인 긴장을 초래했으며, “스펙트럼의 한 쪽 끝에서 교회는 자신을 구원의 소식을 독점하고, 그것을 유일하게 전달하는 자로 인식하며, 다른 한 쪽 끝에서 교회는 자신을 기껏해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활동의 예시로서 간주된다”⁴⁾고 주장한다. 즉 전통적인 교회 중심의 선교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자로 선교사명을 감당하며 회심을 유발시켜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활동의 대행자

4) 데이비드 보쉬, 『변화하고 있는 선교』, 565.

로 간주되는데 반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환원적인 주장은 선교는 사회의 인간화이며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방식에 대한 지시자 정도로 밖에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접근에 대해 레슬리 뉴비긴은 선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업이지 우리의 사업이 아님을 역설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갈등적인 요소들의 화해를 시도하며 구속사적이고 종말론적인 접근을 제기했다.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 불리는 이 교리가 때로는 교회와 심지어 예수의 이름까지 회피하는 선교 개념을 지지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은 이 개념을 심히 남용하는 사례인데 …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 사고의 중심에 둘 경우, 현재 기독교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두 가지 잘못된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는, 개인의 회심, 세례, 교인 만들기를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의 수적 성장이 선교의 핵심 목표가 된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활동은 부차적인 문제다. …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순전히 개인의 영혼 구원과 교회 성장뿐이다. … 다른 한편에는, 이런 입장을 적실성이 없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곧 모든 나라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 내가 알기로는, 이 두 입장 사이의 갈등이 교회의 선교를 크게 약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 이 갈등 관계가 지속되는 이유는 양쪽 모두 중요한 진리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주장은 양쪽 모두 가장 중심적인 진리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선교라는 것이 일차적으로 우리의 사역-복음 전파든 사회 참여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진리다.⁵⁾

5) 레슬리 뉴비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홍병룡 역 (서울: IVP, 2007),

“선교의 정당성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위격, 계획, 성품과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⁶⁾ 로잔 케이프타운 서약은 그 서두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세계 복음화는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⁷⁾ 이러한 주장들이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선교가 하나님의 자기이해이며,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대위임령에 근거하여 세상 가운데서 선교의 대행자(missionary agent)가 된다. 교회의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로 인해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존 웨슬리의 사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교와 연관된 특징들은 무엇인가? 먼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웨슬리의 복음전도의 슬로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보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 준다. 특히 존 웨슬리의 사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론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마이클 프로스트(Michael Frost)와 알란 허쉬(Alan Hirsch)가 주장하는 바, 기독교론은 선교학을 결정하고 선교학은 교회론을 결정하며, 이러한 과정이 재조정의 순환을 거친다는 주장⁸⁾은 삼위일체 하나

256-258.

- 6) 크레익 오토, 스테판 스트라우스, 티모시 테넨트, 『선교신학』, 최형근 외 역 (부천: 도서출판 존스북, 2012), 86.
- 7)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위원회 (LCWE), 케이프타운 서약 (Cape Town Commitment), 1부 1장.
- 8) Michael Frost and Alan Hirsch, *ReJesus: A Wild Messiah for a Missional Church*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2009), 42-45.

님의 선교의 포괄적인 틀을 형성하는 핵심이다. 즉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바울이 주장하는 창조적 기독교론(골 1:15-20; 히 1:2; 요 1:3)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배후에 계시는 분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만물을 유지하는 분”이라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라이트는 “창조 안에서 그리고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교는 그리스도의 중심성에 분명하게 초점 맞춰진다”⁹⁾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시는 분이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은 열방에게 알려지고, 열방은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를 열방에 알리는 중재자로서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이다.

우리는 웨슬리의 설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On Working Out Our Own Salvation)¹⁰⁾와 “원죄”(Original Sin)¹¹⁾에서 하나님의 선교와 연관된 웨슬리의 선교사상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웨슬리는 구원이 선행 은총으로 시작되며, 그것은 생명을 향한 행진을 암시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구원은 깨닫게 하는 은혜로 인해 계속되며,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게, 칭의는 죄책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며, 성화는 죄악의 권세와 뿌리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됨을 의미한다. 웨슬리는 이 구원이 순간적이며 동시에 점진적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9)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나님 백성의 선교』, 142.

10) 존 웨슬리,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 『웨슬리 설교전집 6』, 한국웨슬리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65-178.

11) 존 웨슬리, “원죄,” 『웨슬리 설교전집 3』, 한국웨슬리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65-184.

거룩하고 겸손하며 고상하고 오래 참는 사람 가운데서 의롭다 함을 받는 그 순간에 시작된다고 주장한다.¹²⁾ 웨슬리는 그의 설교 “원죄”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병든 영혼을 고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병의 줄기가 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최상의 치료제가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갈 5:6)이 참된 기독교라고 주장하며, 그 사랑이 온유한 겸손 속에서 작동하며 세상에 대해 완전히 죽은 것이고, 감사에 넘쳐 하나님의 모든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한다는 의미라고 말한다.¹³⁾ 이 두 개의 핵심적인 설교를 통해 존 웨슬리가 주장하는 선교의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 그것은 교회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서 선행 은총,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완전, 치유로서의 구원이라는 통전적 접근이다.

III. 교회의 선교에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행 은총

비록 존 웨슬리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제자 삼는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했다. 웨슬리 신학에 나타난 가장 현저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통전성”이다. 특히 웨슬리의 사변형(Wesleyan Quadrilateral)은 성경을 중심으로 전통, 경험, 이성을 통합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¹⁴⁾ 18세기 계몽주의 모더니즘

12) 존 웨슬리,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 170-171.

13) 존 웨슬리, “원죄,” 180-181.

14) 하워드 스나이더는 웨슬리의 사변형(quadrilateral)에 창조를 추가하여 오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존 웨슬리는 성경에 근거한 선교적 해석과 실천을 통해 교회와 선교의 패러다임을 재발견했다. 그 결과 그의 신학과 실천은 교회개신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오늘날 교회에 중대한 모델을 제공했다. 교회와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웨슬리의 재발견은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었고, 회복된 공동체 가운데 서로에게 헌신하게 했으며(구심적 운동), 복음의 증언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원심적 운동).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도적 비전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존 웨슬리에게 선교는 교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웨슬리는 하나님을 “선교적 하나님”(missionary God)으로 보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이 항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앞서 나아가시는 행동(God's prevenient action)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했다. 웨슬리에게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에서 “너희 자신의 구원’이라는 것은 선행 은총으로 시작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있다든가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 순간적으로 생긴다면 이것은 선행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을 향한 어떤 행진을 암시합니다”라고 말한다.¹⁵⁾ 웨슬리가

변형(pentalateral)을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웨슬리의 신학은 보다 통전적인 신학으로 자리매김하며 오늘날 신학적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생태신학에 대한 복음주의적 논의의 기초를 제공한다. Howard A. Snyder ed., *Global Good News: Mission in a New Context*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1), 138-152.

15) 존 웨슬리,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 170-171.

살던 시대에 “prevent”라는 단어는 “앞서 나아가다”(go ahead)를 의미했다. 이 단어를 오늘날의 용어로는 “preceeding grace”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항상 모든 사람들과 문화들을 당신 자신에게로 이끄신다는 의미이다. 즉,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문화와 사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들을 이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하여 웨슬리 신학이 갖고 있는 풍부한 선교적 함의들 가운데 선행 은총이 내포하는 함의는 매우 중요하다. 먼저, 선행 은총이 내포하는 가장 핵심적인 함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교회와 그리스도인)에 앞서 가신다는 것이다. 선행 은총 그 자체가 구원하는 은혜는 아니다. 하지만 그 기능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으로 이끈다. 웨슬리는 앞서 나가시고(preventing or preceeding), 의롭게 하시며(justifying or converting), 거룩하게 하시는(sanctifying) 은혜에 대해 말한다.¹⁶⁾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는 우리에게 앞서며,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끄시며, 우리를 회심케 하시며, 우리를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므로 마침내는 새 창조 안에서 우리를 “영화”로 이끄신다. 케네스 콜린스(Kenneth J. Collins)는 웨슬리의 선행 은총의 교리는 모순 없이 인간의 전적 타락, 은혜에 의한 구원, 인간의 책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제공이라는 네 가지 동기들을 통합한다고 주장한다.¹⁷⁾ 또 다른 선행 은총의 선교학적 함의는, 하나님의 영은 선교적 영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들, 문화들, 사회들, 그리고 많은 종교들(모든 종교들은 아닐지라도) 가운데

16) 존 웨슬리, “은총의 수단,” 『웨슬리 설교전집 1』, 한국웨슬리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317-344.

17) Kenneth J. Collins, *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7), 45.

데 역사하고 계신다.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은혜를 모든 문화 가운데서 발견하는 역할과 연관된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적 상황 안에서 가시적인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선교(교회의 선교)를 앞설 뿐 아니라 교회의 선교를 소유한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이며, 교회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세상에 보여주므로(demonstrate) 열방으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III.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가 나오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때 거룩함과 성결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는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거룩한 삶은 그들을 통해 열방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창 18:19; 19:4-6).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성경적 윤리가 없이는 성경적 선교도 없다”¹⁸⁾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존 웨슬리에게 구원은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피조물들과의 연관성에서 이해된다. 구원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며 그것은 인격의 성숙

18)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나님 백성의 선교』, 464.

함에 이르는 과정으로서의 완전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며 하나님과의 친교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게 한다. 그에게 선교는 “성화”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행위와 삶의 방식과 분리될 수 없다. 웨슬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복음 전파자의 삶의 정직성과 청렴함은 자신의 설교와 부합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났다. 웨슬리에게 “완전”이라는 용어는 완성된 절대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되어가는 지속적인 과정이었다(벧후 3:18).¹⁹⁾ 웨슬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완전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두 가지를 마음에 두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이며 만물의 회복으로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궁극적 목적이었다. 이 두 가지 요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며, 그것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웨슬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의미했다. 그것은 전적으로 사랑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여기서 핵심은 그리스도의 형상(성품)으로 우리를 (개인적으로 뿐 아니라 공동체적,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의 전 영역에서) 변혁하시는 성령의 역사이다. 그리스도인이 완전하게 되어 나가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혹은 “성령으로

19) 존 웨슬리, “그리스도인의 완전,” 『웨슬리 설교전집 3』, 한국웨슬리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86-87.

충만한” 상태이며,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엡 3:19; 4:13; 5:18; 골 2:10).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완전하게 되어가는 과정은 제자도의 길(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참된 예수의 제자 공동체로의 변혁되는 것을 의미한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완전하게 되어가는 경험을 “사회적 성결”(social holiness)라고 불렀다. 웨슬리에게 사회적 성결은 사회적 의를 의미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경험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인 성결이 고독한 것이나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것이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고 정제되며 삶으로 구현된 관계적인 것이라고 말한다.²⁰⁾

웨슬리의 이러한 관점은 관계의 갱신(칭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성화)의 통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의 갱신과 그에 근거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 런연(Theodore Runyon)은 이러한 관계성을 “칭의 안에서 새롭게 된 실재를 살아가는 삶과 신적 변화의 능력을 개인이나 사회의 모든 분야로 연장시키는 것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²¹⁾ 웨슬리에게 완전의 교리는 의도의 완전(perfection of intention)과 의지의 완전(perfection of will)을 포함한다. 이것은 의도의 완전히 내포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넘어서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²²⁾ 이 점에서 런연은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에 가장 합당한 출발점은 사랑이며, 사랑으

20) 존 웨슬리, “산상설교 IV,” 『웨슬리 설교전집 2』, 한국웨슬리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31-151 참조.

21) 테오도르 런연, 『새로운 창조』, 김고광 역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1999), 312.

22) 앞의 책, 313.

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길이요, 넓이요, 깊이요, 높이라고 말한다.²³⁾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인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완전을 향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웨슬리는 선행 은총을 통해 은총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유지했으며, 이 은총의 낙관주의를 통해 보편적 대속과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강조하는 기초를 마련했다. 웨슬리의 은총의 낙관주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이며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자 맛보기임을 보여준다.²⁴⁾ 즉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대행자이다. 스나이더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웨슬리의 견해는 성화의 교리와 체험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내적 성결과 외적 성결(개인적 성화와 사회적 성화)의 균형을 이룬다고 말한다.²⁵⁾ 이러한 웨슬리의 교리와 체험의 균형은 신도회, 속회, 조의 조직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개인의 삶뿐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기 위한 교회의 변혁적인 삶으로 사회와 문화를 갱신하고 개혁하는 힘으로 작용했다. 이에 대한 한 예로, 웨슬리는 “돈의 사용”(The Use of Money)이라는 설교에서 부의 축적이라는 탐욕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계하고 복음주의적 경제관을 가지고 나눔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한다.²⁶⁾ 복음의 담지자이자 증인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개인적 성화와 사회적 성화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내적이며, 그 내적 신앙의 증거가 사회적이기

23) 앞의 책, 314.

24) 하워드 스나이더, 『혁신적 교회갱신과 웨슬리』, 조종남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174-175.

25) 앞의 책, 176.

26) 존 웨슬리, “돈의 사용,” 『웨슬리 설교전집 3』, 한국웨슬리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281-299.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인 윤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교의 중간에 놓여 있다고 말하며, 윤리가 선택의 목적이자 선교의 기초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윤리적으로 나타내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고, 열방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는 그런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²⁷⁾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교의 무대인 세상에서 성경이야기(grand narrative)와 연속선상에 있는 존재이며 열방에 복이 되고 피조세계를 보전하며 공적 광장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²⁸⁾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 근거하여 작성된 제3차 로잔대회의 케이프타운 서약 2부 5장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 된 온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순례의 메타포를 사용하여 5가지 이상승배를 거부할 것을 단호하게 요청한다.²⁹⁾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복음에 적대적인 타종교나 세속문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상승배라고 주장한다.³⁰⁾ 오늘날 교회가 사로잡혀 있는 이상들에 대해 케이프타운 서약 5장은 성적인 이상승배, 권력이라는 이상승배, 성공이라는 이상

27)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나님 선교』, 463.

28)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나님 백성의 선교』. 라이트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라는 로잔운동의 슬로건을 채용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목표인 온 세상에서 온전한 복음을 담지한 온 교회의 정체성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그의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종류의 백성인가?”이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라이트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14가지로 규정한다.

29)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위원회(LCWE), 케이프타운 서약(Cape Town Commitment), 2부 5장.

30) 하나님의 선교와 이상승배에 관해서는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나님의 선교』, 169-236 참조.

승배, 그리고 탐욕이라는 이상승배라고 지적한다. 첫째,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란함으로 인해 교회의 청렴성이 손상되고 있다. 성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높은 이혼율과 역기능적인 가정을 양산하고 있으며, 목회자의 타락과 대사회적인 공신력의 추락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귀결된다. 둘째, 권력의 남용 문제는 비단 정치 분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 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특히 권력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유교문화가 지배하는 한국에서 강한 권력 지향적 성향은 교회를 싸움과 분열로 얼룩지게 만들었다. 권력의 남용은 가정에서 부부관계의 파괴와 교회 내에서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고착화시키므로 하나님의 선교의 방해물이 되고 있다. 교회가 권력이라는 이상승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보여주는 겸손함과 섬김의 자세를 회복하는데 달려 있다. 셋째, 성공이라는 우상은 교회로 하여금 온전함(청렴함과 순결함)을 포기하는 대가이고 성공과 끝없는 성장을 약속한다. 성공과 성장을 위하여 목회자들은 세속적인 방식들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기도 한다. 즉 효율적이고 실용적이며 측정가능하고 결과 지향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므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경쟁적으로 성공을 추구하게 된다. 넷째, 현대 교회 안에 만연한 물질에 대한 탐욕이라는 우상은 교회를 “번영의 복음”(prosperity gospel)이라는 현상을 낳았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소개된 “긍정의 힘”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이 물질적 축복에 의해 측정되거나 부가 항상 하나님의 징표라는 주장을 비성경적인 것으로 거부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성적인 이상과 돈과 권력, 성공이라는 이상의 제단을 훼파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온전함과 단순한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암담할 것이다. 이것이 존 웨슬리가 추구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지향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

고 확신한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가 가장 잘 구비되고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이다. 그러한 공동체는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교회이다.

VI.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치유와 회복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창 1:26-27).³¹⁾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선교학적 관점에서 이것을 분석한다. (1)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2)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3)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 (4) 성경적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적절하다.³²⁾ 라이트의 선교학적 분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좋은 소식을 열방에 전하는 교회의 선교적 과업과 연관된 하나님의 선교를 주장하는 것이다. 웨슬리 역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가치나 존엄성 이상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속적 함의들을 지니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비록 죄로 오염되었을지라도 구속되고 치유되며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소식으로서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다. 하나님의 선교는 구원자이며 온 땅을 소유하시는(시 24:1)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으로 시작한다.

31) 존 웨슬리, “하나님의 형상,” 『웨슬리 설교전집 4』, 한국웨슬리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05-119. 이 설교에서 웨슬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모습과 그 모습의 상실과 회복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기독교적 인간론인 “구원의 과정”(ordo salutis)으로서 은혜의 신비이다.

32)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나님 선교』, 530-534.

그러나 웨슬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한 소외와 죄책,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인한 심판을 간과하지 않는다(롬 3:23). 웨슬리에게 죄는 하나님의 형상의 전적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 받을 만한 것이 있고 회복 될 수 있는 가능성(capable of God)이 남아 있다. 이것이 웨슬리의 “은총의 낙관주의”(optimism of grace)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기에 하나님의 구속은 창조세계를 포함하며, 만물의 청지기로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만물과 화해할 수 있게 된다. 바울은 창조세계를 십자가의 구원하는 능력 가운데 포함시킨다(골 1:15-23).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해하셨다고 말한다(고후 5:19). 여기서 우리는 웨슬리의 세계관이 헬레니즘적인 이원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성경적(통전적) 세계관임을 간파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웨슬리의 세계관은 생태학적(ecological)이다. 웨슬리의 사상에 나타난 세계관은 물질적 영역과 영적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다. 웨슬리의 구원에 대한 이해는 인류의 구원 뿐 아니라, 전 피조세계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다. 즉 웨슬리에게 개인구원과 사회구원, 복음전도와 사회변화는 분리된 것이 아니며, 더 나아가 창조세계의 회복은 더 포괄적인 구원에 대한 창조신학적 접근을 의미한다.

랜디 매닥스(Randy Maddox)는 웨슬리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하나님의 은혜 개념을 통합하는 것으로서 “구별된 통합”(distinctive integration)이라고 부른다. 서방신학 전통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주로 용서(pardon) 혹은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죄책의 무조건적인 용서라고 이해하는 반면, 동방신학 전통은 주로 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치유하는 능력(power)으로 해석한다.³³⁾ 웨슬리는 “우리 자신의 영의 증

33) Randy Maddox, *Responsible Grace: John Wesley's Practical Theology* (Nashville,

거”(The Witness of Our Spirit)라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모양대로’(창 1:26) 영혼을 갱신하는 성결, 하나님의 영광에 부응하도록 우리의 모든 발언과 행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느끼게 해 주십니다”라고 말한다.³⁴⁾ 웨슬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인한 치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며 성결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웨슬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의 치유를 가져온다. 이것은 매닥스는 은혜에 대한 기독교론에 근거한 “치유적 강조에 대한 웨슬리의 깊은 공감”이라고 말한다.³⁵⁾

오늘날 복음주의 진영에서 웨슬리가 주장하는 구원에 대한 “치유적 모델”(therapeutic model)이 전통적인 죄책과 은총에 대한 유일한 성경적인 강조를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거의 수용되지 않는다. 또한 구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치유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에 굴복하고 주관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도덕적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가 웨슬리의 사상에서 발견되는 통전적 접근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본질이 인간 뿐 아니라 사회와 문화, 그리고 환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반으로 확대되어 죄의 질병과 소외로부터 치유되는 것을 지향한다. 맨프레드 마르쿠아트(Manfred Marquardt)는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삶을 언급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회심 이후에 “세상에 대한 회심”이라는 두 번째 회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하나님의 대한 회심은 이미 세상에 대한 회심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속하려는 의도를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이 세상에

TN: Kingswood Books, 1994), 84.

34) 존 웨슬리,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웨슬리 설교전집 1』, 한국웨슬리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246.

35) Randy Maddox, *Responsible Grace: John Wesley's Practical Theology*, 85.

속하지 않고 대조사회(contrast society)와 대항문화(counter culture)로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행위의 지평으로서 온 세상을 품도록 부름을 받았다.³⁶⁾

웨슬리의 구속신학과 창조신학의 통합적 접근의 선교학적 함의는, 무엇보다도 그의 치유모델이 구원에 대한 개인적이면서도 관계적 본질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 신체적, 사회적(관계적), 환경적, 그리고 만물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우리의 분열된 이해를 통합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차원들에서의 치유를 의도하고 수반한다. 치유로서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준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영혼의 치유라는 점을 보여준다. 온 세상, 즉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치유와 회복으로서의 구원의 모티브는 대중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이나 생태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밝히 보여준다. 또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한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모든 피조세계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자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인 교회가 지속적인 회심을 통해서 먼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의 통치와 그의 나라의 도래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구원과 치유의 공동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에 대한 재발견은 오늘날 선교적 교회론을

36) Manfred Marquardt, "Christian Conversion: Connecting Our Lives with God," *Rethinking Wesley's Theology for Contemporary Methodism*, Randy Maddox ed. (Nashville, TN: Kingswood Books, 1998), 110-111.

위한 중요한 시도이다. 존 웨슬리의 사상을 선교적 관점에서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하워드 스나이더는 “구원은 창조세계의 치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치유 공동체로 부름 받는다. 교회에 대한 모든 것(교회론)은 그렇게 단순하며 그렇게 심오하다”고 주장한다.³⁷⁾ 기독교 선교는 삼위일체이며 선교를 위한 능력은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는 삼위일체 가운데 존재하는 생명이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 참조). 또한 삼위일체는 깊은 의미에서 생태학적 실재이며 신비이다.³⁸⁾

V. 나가는 글

웨슬리의 사상에 나타난 특징적 요소들인 선행 은총,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고 창조의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과 부합하고 상관성을 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참된 공동체를 통해 끊임없이 선교적 실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가 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신학적 숙고로 이어졌다. 어떤 의미에서 그의 신학은 경건한 삶과 선교적 실천에서 나온 결과물이었다. 웨슬리의 복음적 삶에서 나오는 신학적 숙고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목회자)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특히 목회자들이 복음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일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진정으로

37) Howard A. Snyder with Joel Scandrett, *Salvation Means Creation Healed: The Ecology of Sin and Grace* (Eugene, OR: Cascade Books, 2011), 167.

38) 앞의 책, 178.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존 웨슬리의 생애는 그 자신의 고백으로 요약된다. “나는 한 책의 사람(*bomo unius libri*)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 구원의 대서사인 복음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평생 동안 복음을 치열하게 살아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러한 웨슬리의 헌신은 18세기 영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선교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구원의 역사와 근원적인 변혁이 없는 곳에는 복음도 없다.

참고문헌

- 김은수.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데이비드 보쉬. 『변화하고 있는 선교』. 김병길, 장훈태 역. 서울: CLC, 2000.
- 레슬리 뉴비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홍병룡 역. 서울: IVP, 2007.
- 존 웨슬리. “그리스도인의 완전.” 『웨슬리 설교전집 3』. 한국웨슬리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 “돈의 사용.” 『웨슬리 설교전집 3』. 한국웨슬리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 “산상설교 IV.” 『웨슬리 설교전집 2』. 한국웨슬리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 “원죄.” 『웨슬리 설교전집 3』. 한국웨슬리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 『웨슬리 설교전집 6』. 한국웨슬리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웨슬리 설교전집 1』. 한국웨슬리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 “은총의 수단.” 『웨슬리 설교전집 1』. 한국웨슬리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 “하나님의 형상.” 『웨슬리 설교전집 4』. 한국웨슬리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크레이 오토, 스테판 스트라우스, 티모시 테넌트. 『선교신학』. 최형근 외 역, 부천: 도서출판 존스북, 2012.
-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나님의 선교』. 정옥배, 한화룡 역. 서울: IVP, 2010.
- . 『하나님 백성의 선교』. 한화룡 역. 서울: IVP, 2012.
- 테오도르 런던. 『혁신적 교회갱신과 웨슬리』. 김고광 역. 서울: 기독교대한

감리회 홍보출판국, 1999.

하워드 스나이더. 『혁신적 교회갱신과 웨슬리』. 조종남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Collins, Kenneth J. *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7.

Frost, Michael and Alan Hirsch. *ReJesus: A Wild Messiah for a Missional Church*.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2009.

Maddox, Randy. *Responsible Grace: John Wesley's Practical Theology*. Nashville, TN: Kingswood Books, 1994.

Marquardt, Manfred. "Christian Conversion: Connecting Our Lives with God." *Rethinking Wesley's Theology for Contemporary Methodism*. Randy Maddox ed., Nashville, TN: Kingswood Books, 1998.

Snyder, Howard A. ed. *Global Good News: Mission in a New Context*.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1.

Snyder, Howard A. with Joel Scandrett. *Salvation Means Creation Healed: The Ecology of Sin and Grace*. Eugene, OR: Cascade Books, 2011.

Van Gelder, Craig. *The Essence of the Church: A Community Created by the Spirit*.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0.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위원회(LCWE) 편. 『케이프타운 서약』(Cape Town Commitment).

■ *Abstract*

Theology of John Wesley from a Perspective of
Missio Dei

Choi, Hyung Keun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flect the concept of *Missio Dei*, to analyze prevenient grace, Christian perfection, and the healing and restoration of the creation in John Wesley's life and ministry a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Missio Dei*, and to suggest missiological implications of those factors today.

The best way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Missio Dei* is to interpret the Bible from a missiological perspective. In other words, the meaning of the mission of God is that in the divine action God calls His people and has the covenant relationship with them and sends them into the world, and Jesus sent by the Father commissions His church as sending it to the world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For John Wesley, the slogan "The world is my parish" articulates the identity of the church and Christians who are sent by the triune God. Wesley insisted that the salvation begins with the prevenient grace, implying the march for the eternal life. And the salvation process follows both justification (justifying and converting grace) and sanctification. These process indicates the holistic dimension of the salvation. First, though the prevenient grace itself is not saving grace, the focal point of the prevenient grace is that God precedes us in Jesus through the Holy Spirit.

Second, salvation in Wesleyan theology means to reach “Christian perfection,” which would be the process of maturity of Christian character. From a Missio Dei perspective,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holy life of the God’s people. For Wesley, salvation is understoo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en, between neighbors, and between men and the creation. Life and ministry of John Wesley can be seen the integration of his preaching and deed. Third, the missiological implications of John Wesley’s theology as seemingly integrating the redemption theology with the creation theology, is to emphasize both individual and relational dimension as a therapeutic model. This can make us overcome the dualistic understanding of creation and salvation and understand the holistic dimension of human relationships with other created order. Wesleyan theology brings us to think God’s salvation as healing in every dimension of human life. This is salvation as healing, one that healing can only through Jesus Christ reconciling God and others. This kind of healing can make us restore the image of God and Christ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Key Words

하나님의 선교, 삼위일체, 선행은총, 그리스도인의 완전,
창조의 치유와 회복

Missio Dei, Trinity, Preventive Grace, Christian perfection,
Healing and Restoration of Creation

* 논문투고일 2013. 10.21, 심사완료일 2013. 10.25, 게재확정일 2013. 11.02.